

AUTHOR 한명동

TITLE 현대와 칼빈주의

IN 개혁주의

39호 (7, 1970): 2-4.

개혁주의

통권 39호

1970년
7월호

— 차 례 —
7 1970

- ◇논 설
현대와 칼빈주의한명동... 3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70년대 교육의 전망이근삼... 5
칼빈의 죄악론이기전...11
- ◇설 교
하나님이 갈아사대석원태...14
- ◇수 상
캐나다에서(제 1 신).....허순길...18
팔있는 낚장사심군식...20
웃기를 적실때박옥동...22
- ◇개혁주의 소식한집부...25

개혁주의사발행

<논 설>

현대와 칼빈주의

한 명 동
<남교회 목사>

현대는 하나님 부재를 말하는 시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현대는 부정의 시대이다. 신앙을 부정한다. 십자가를 거절한다. 경건할 능력을 부정한다. 그리기에 현대는 신앙 부재의 시대이다. 십자가 부재의 시대이다. 경건 운동의 부재 시대이다.

특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자연과학 만능을 강조하여 인간 이성을 중심한 합리주의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성경은 인간의 종교적 산물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걸출한 인물로 인류의 최고 모형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순교한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자연주의와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능력을 더욱 가장한다. 인간 자신의 근본적 성질의 선량을 그들은 확신하며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현대는 인간 자신에 대하여 너무 과신하고 있다. 인간 자신은 신으

로 하는 망령된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까지 부인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무오설을 냉소하며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론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 따라 사회에 나타난 현상은 어떠한가? 극도로 도덕은 부패하게 되었고 성개방을 제창하고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시대가 곧 현대인 것이다. 현대는 이와같이 타락하였고 부패하였다.

현대 교회는 이와같은 현대 자유주의적인 신앙 사조로 말미암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기독교 역사상 유래 없는 위기 속에 살고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하며 어떻게 사교(思考)하며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자연을 정복하고 새로운 인간 힘을 인식하여 명예와 물질 문화로써 인간 바벨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더우기 인간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합리주의가 평

창하여 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의 신앙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히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위 방언과 병고치는 일을 복음위에 올려놓고 무지한 광신자들을 현혹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판을 치는 이 말세적 풍경 앞에 개혁주의자들의 신앙 자세는 과연 어떻게 가질 것인가?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해 보아야 하겠다.

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근본 원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다 두었다. 이 객관적인 하나님 주권 원리에서 그의 신학 체계와 신앙과 생활의 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1. 칼빈 주의자는 일체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배를 확신하며 지존자의 능력에 절대 의존하며 예민한 죄감에서 깊이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하면서 어떻게 믿고 주장하며 이것을 우리의 생활속에 그대로 실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 속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함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의지만이 만사의 원인임을 믿고 우주의 모든것은 하나님의 뜻에 종극적으로 좌우됨을 확신하고 이를 주장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2. 칼빈 주의자는 우리의 전 사고, 전 감정, 전 행동을 부절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복종시키며 결단해 나가는 것이다.

3. 칼빈 주의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선에 대 인간의 무능력한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을 확신하며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인간의 공력, 행위 능력, 그 근거, 그 원인, 그 동기,

그 장소, 이 모든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에만 나의 영혼을 던져 맡기는 신앙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들리는 신앙 생활이 칼빈주의자의 신앙 생활이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13)

하고 하나님을 암모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와 교회와 세계의 전부로서는 신앙이 칼빈주의의 신앙이다.

하나님 없는 현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고하며, 감정하며, 의지(意志)하며, 행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칼빈 주의자의 세계 교회 운동이다.

교회내에 잠복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혼탁한 신앙 사상을 베격하고 교회내의 모든 세속적인 바리새의 누룩을 제거하고 교리와 생활의 순결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하여 현대의 칼빈주의자들은 총 령기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 군인들의 위기에 들었을 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주신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 이적의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칠메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타지 않고 산 그 이적의 역사를 믿는다. 다니엘이 사라굴 속에 들어 갔지만 죽지 않고 산 이적의 역사를 그대로 믿는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는다.

현대는 분명히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근본적인 혁신과 개혁

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칼빈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교리가 순결하고 생활이 경건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이 땅위에 세우기 위하여 그리

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며 앞서간 순교자의 뒤를 이어 일사불란히 각오하고 매진하여야 하겠다.

초 대 합 니 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의 가정과 일터와 경영하시는 사업위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뢰올 말씀은 불초한 사람이 각종 포목도산매업을 경영한지 15주년을 맞아 수요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초대하오니 변함 없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 6월 19일

부 산 남 교 회

장로 손 창 희 올림

국제시장 5공구 B동 2층 223호

전화 점포 ☎ 0223 · 자택 ☎ 1842

혼수에 단은 } 국제포목상사로!
한복옷감은 }

※본 상사는 생산공장과 직접 거래하므로 안심하고 염가로 사실 수 있습니다.